



2018년 6월 17일(제880호) 연중 제11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꾸준함의 결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모두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트집 잡고 반대하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특히 버려지고 내쳐진 이들을 자비로운 하느님의 품 안에 모아들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분이 미쳤다고 여기면서 붙잡으러 왔고, 백성의 지도자인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마귀 두목이라고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백성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백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으니 말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뭔가 확실한 징표를 통해 지금의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몇 가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도 이에 속합니다. ‘농부가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확장된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온갖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하느님의 나라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장대하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고 희망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복음의 요점

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시고,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희망을 갖도록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작고 별 볼 일 없는 씨앗을 통해 바라본 하느님의 나라는 ‘천국 대박’ 즉, 로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줄기가, 그리고 이삭이 그 다음에는 속이 꼭 찬 낱알이 맺히는 순서처럼 과정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씨앗’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씨가 세례를 통해 우리 삶에 뿌려집니다. 신앙을 잘 가꾸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이 우리 삶 안에서 점점 커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변화는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건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안에서 커가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꺾이지 않는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결실을 맺으십니다. 또한 결실의 때와 방법은 온전히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홍승보(베드로) 신부  
맹포(육군 수기사)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예제 17,22-24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제 2 특 시**      2코린 5,6-1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 복 음**           마르 4,26-34
- 영 성 제 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성인명: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權相問 Sebastian)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69-1802년

권상문(權相問) 세바스티아노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반 집안 출신이다. 교회 창설 주역들의 스승이요 학문으로 이름이 높던 권철신 암브로시오는 그의 큰아버지였으며, 교회 창설에 참여한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그의 아버지였다. 뒷날 권 세바스티아노는 조선의 풍습에 따라 큰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

1769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권 세바스티아노는 일찍부터 집안의 신앙을 이어받아 열심히 신자가 되었다. 또 장성한 뒤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이웃에 사는 윤유일 바오로 형제를 비롯하여 몇몇 교우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거나 교리를 연구하였다.

1791년의 신해박해로 생부인 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죽임을 당하자, 권 세바스티아노는 마음이 약해져 한때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로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고, 성사를 받으려고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이때 그는 동료들과 함께 주 야고보 신부를 방문하고 모임을 가졌으며, 얼마 뒤에는 고향인 양근으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1795년의 을묘박해로 주 야고보 신부가 피신 생활을 하게 되자, 3일 동안 주 신부를 자신의 집에 유숙시키면서 교리를 배웠다.

1800년 6월 경기도 양근에서 일어난 박해로, 권 세바스티아노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후 그는 양근과 경기 감영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끈뭇하게 신앙을 증언하였다. 그런 다음 1801년의 신유박해가 한창일 무렵에 한양으로 압송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권 세바스티아노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잠시 마음이 약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전에 한 말을 취소하였으며, 사정없이 가해지는 형벌을 받으며 신앙을 증언하였다.

형조에서는 ‘권상문을 고향으로 이송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권상문 세바스티아노의 고향인 양근 주민들이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 양근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복	음	목	상	<p style="text-align: right;">-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p> <h3 style="text-align: center;">풍선타고</h3> <p style="text-align: center;">                 풍선 하나                  잡아타고,                  하늘에 올랐습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                 임 찾아가는                  이 길이                  이처럼 신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p> <p style="text-align: center;">                 꼭,                  풍선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p>
---	---	---	---	--------------------------------------------------------------------------------------------------------------------------------------------------------------------------------------------------------------------------------------------------------------------------------------------------------------------------------------------------------------------------------------------------------------------------------------------------------------------------------------------------------------------------------------------------------------------------------------------------------------

상화이야기

메디치 경당



메디치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묻혀, 메디치 경당이라고 불리는 이 경당은, 미켈란젤로가 직접 설계하고 조각한 작품들을 설치한 곳이나, 미켈란젤로가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향하면서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경당의 한 면에 제대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줄리아노 메디치와 로렌조 메디치를 조각한 작품과 각종 인물들, 그리고 무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작품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과 제대 맞은편에는 성모자상과 메디치 가문의 수호성인 조각품이 있다.

경당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각형과, 둥근 원 모티브가 혼재하고 모형 창문들과 빛이 들어오는 진짜 창문들, 모형 문과 실제 문들이 혼재되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관람객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어, 경당 내부가 일종의 ‘건축적 연옥상태’이기에, 방문자 및 메디치 가문의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망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권유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설명한다.

이는 경당의 천장을 보아도 그러하다. 천장은 분명 천상을 상징해야 할 텐데, 천장과 그 하단부와의 경계가 모호하다.

김은혜(엘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무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1주일: 솔지 박원재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6월 17일(주일) 11:00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리” (마르 16,15)